고용과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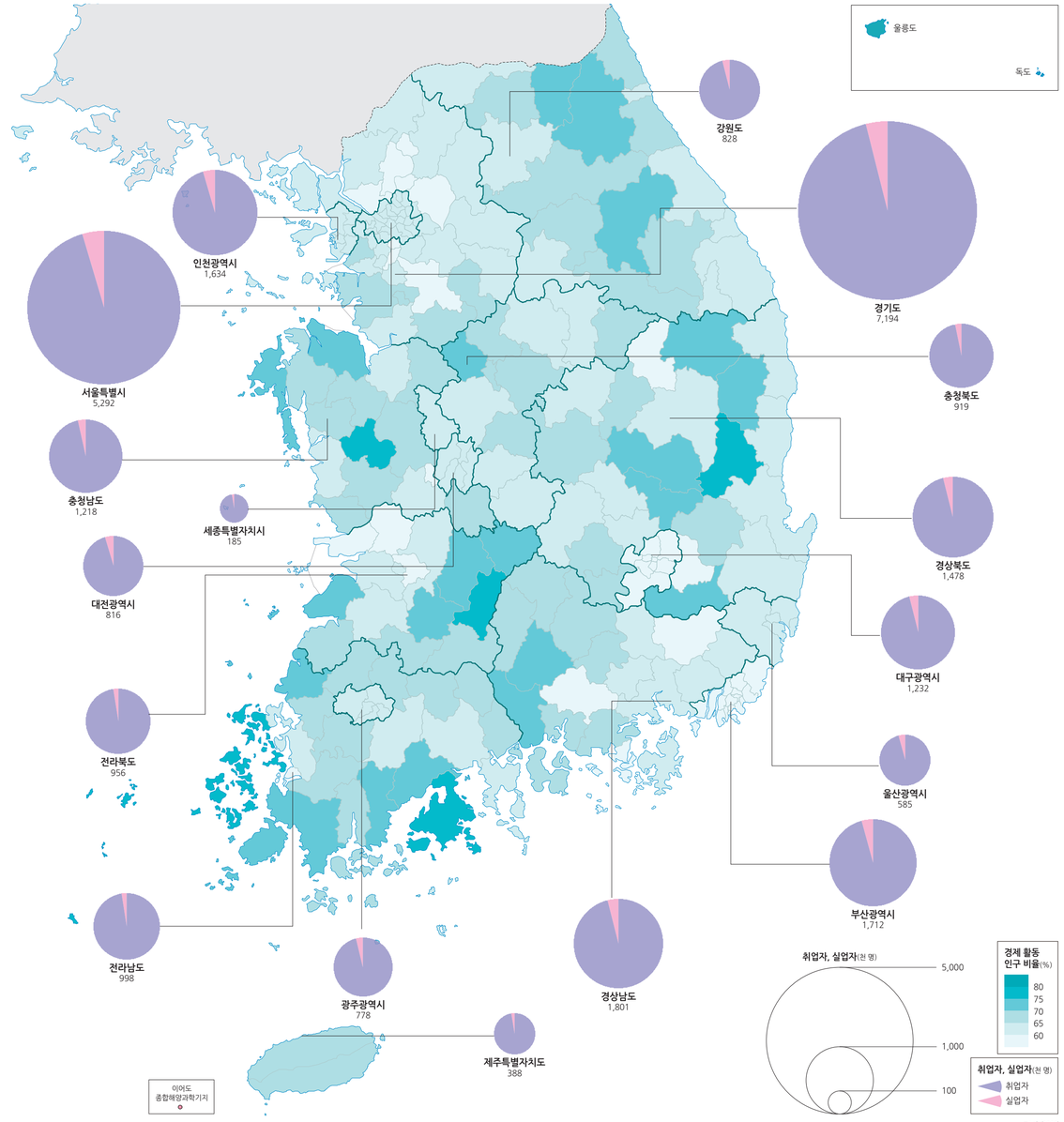
노동은 자연 혹은 기존 노동의 산물인 원자재에 일정한 작용을 하거나 변형을 가하여 생존과 생활에 효용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용은 노동을 재화 혹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분석하면 인력 자원과 그 활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고용 시장에 주목하는데 그 성장과 침체가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는 산업화, 서비스 경제화, 세계화, 지식 정보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중심이었으나 이후 정부 주도 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제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많은 청장년층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지만 1990년을 정점으로 제조업은 일자리 측면에서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서비스 경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체적 노동보다는 정신적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자 중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일부 제조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얻게 되었다.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으며, 특히 여성이 고학력화하면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통신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지식과 융합하여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노력은 근로자의 고학력화를 가속시켰다.

베이붐 세대가 고령화하고 저출산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청년 실업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 경제 위기와 그 여파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고용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 및 고령층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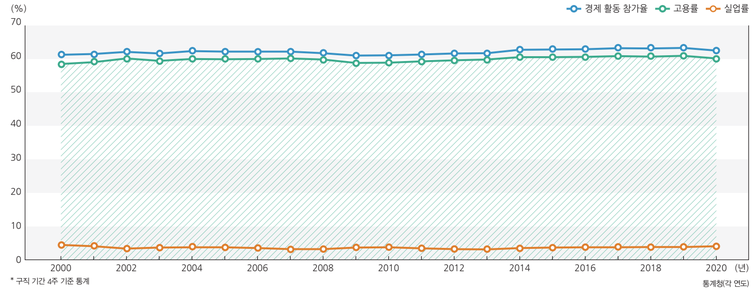
통계청(2020)

고용과 실업(2020년)



통계청(2020)

전국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



* 구직 기간 4주 기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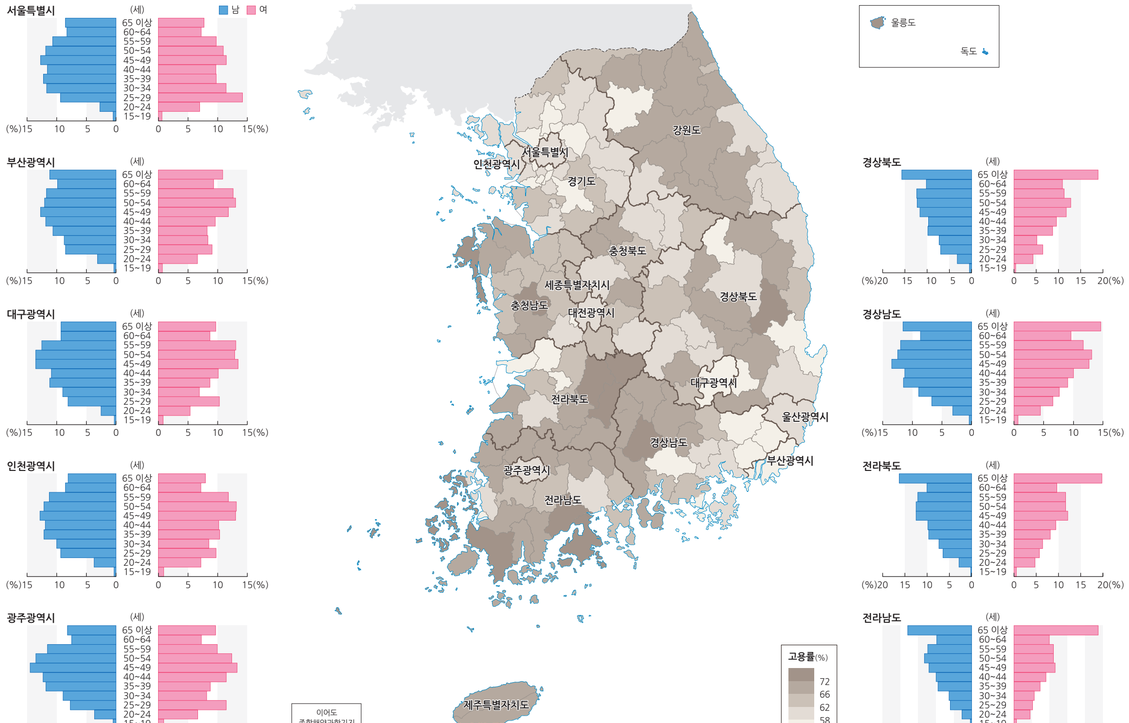
통계청(각 연도)

2020년 현재 전국의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수는 약 4,479만 명이다. 이 중 육아, 가사, 교육, 국방, 사회적 여건 등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77만여 명이며, 현재 취업 혹은 구직 상태에 있는 경제 활동 인구는 2,801만여 명이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0년 이후 줄곧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 참가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여파로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62.5%이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대도시권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력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20년 전국 취업자는 2,690만여 명이고 실업자는 111만여 명이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56.7%까지 떨어졌다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2020년 현재 60.1%이다.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인 실업률 또한 경제 위기 때 6.3%까지 올랐다가 떨어져 2020년 현재 4.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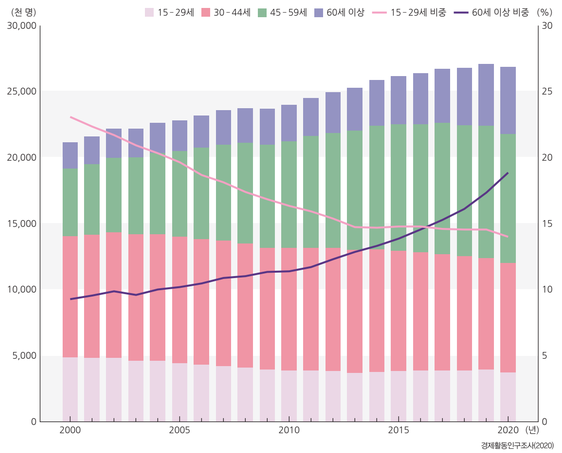
취업자

고용률(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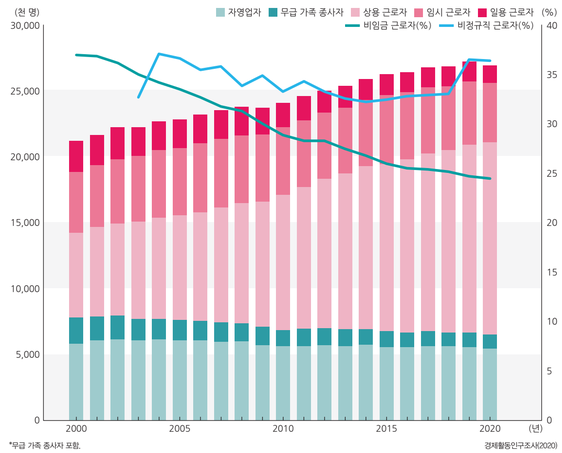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연령별 취업자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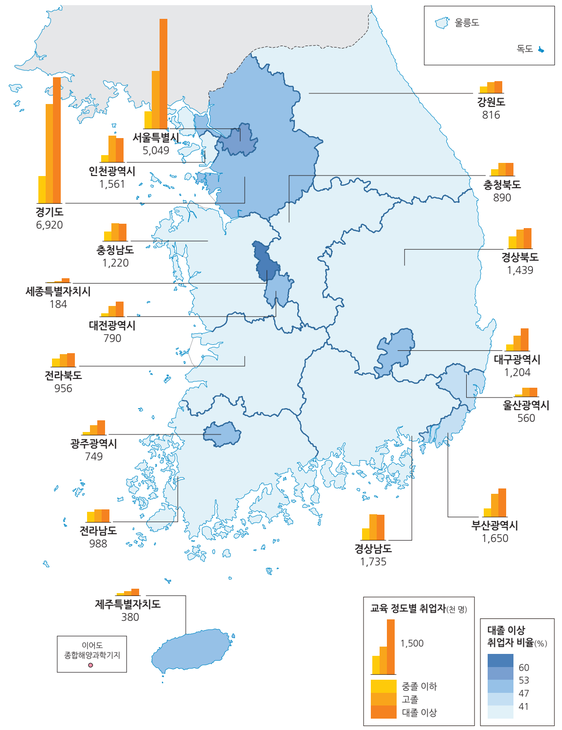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무급 가족 종사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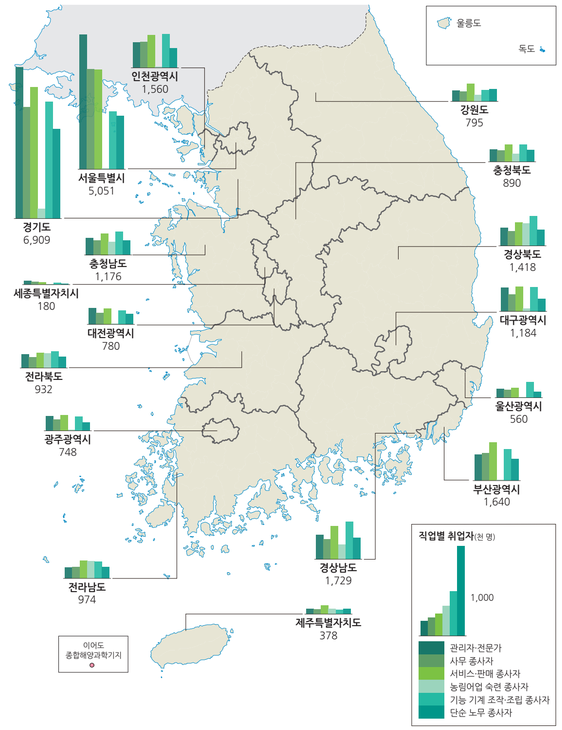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교육 정도별 취업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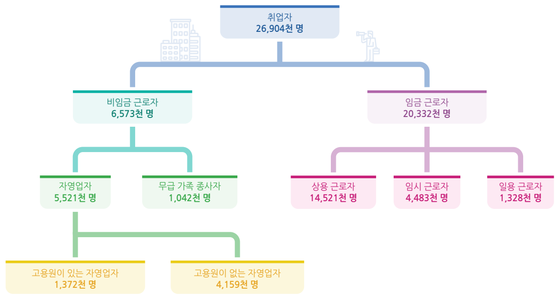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직업별 취업자(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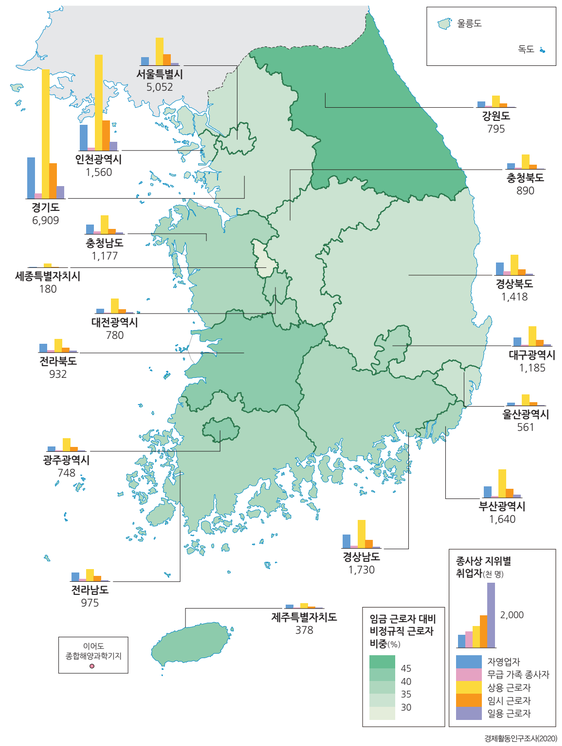
대도시권에서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실업률은 높은데 이는 대도시권의 일자리 수요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대도시권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취업률과 실업률의 변화 폭 또한 크게 나타난다.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더불어 취업자 집단의 연령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020년 현재 중장년 취업자(30－60세) 67.1%, 고령 취업자(60세 이상) 18.9%, 청년 취업자 14.0%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에 비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9%p 줄어든 반면 고령 취업자의 비중은 두 배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54.0%), 자영업자(20.6%), 임시 근로자(16.7%), 일용 근로자(4.9%), 무급 가족 종사자(3.9%) 순이다.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수도권에서 일한다. 지난 20년간 상용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자영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20년 36.3%로 지난 십여 년간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전반적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취업자의 고학력화가 뚜렷하다. 2020년 현재 취업자 중 대졸 학력자의 비중은 48.0%인데 고학력 취업자는 대도시에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직업별 취업자는 전국적으로 서비스·판매 종사자(22.1%), 관리자·전문가(21.8%),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9.7%), 사무 종사자(17.4%), 단순 노무 종사자(1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1%) 순이다. 지역별 구성은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에 상응하는데 예로 서울은 관리자·전문가의 비중이, 울산은 기능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비중이 평균을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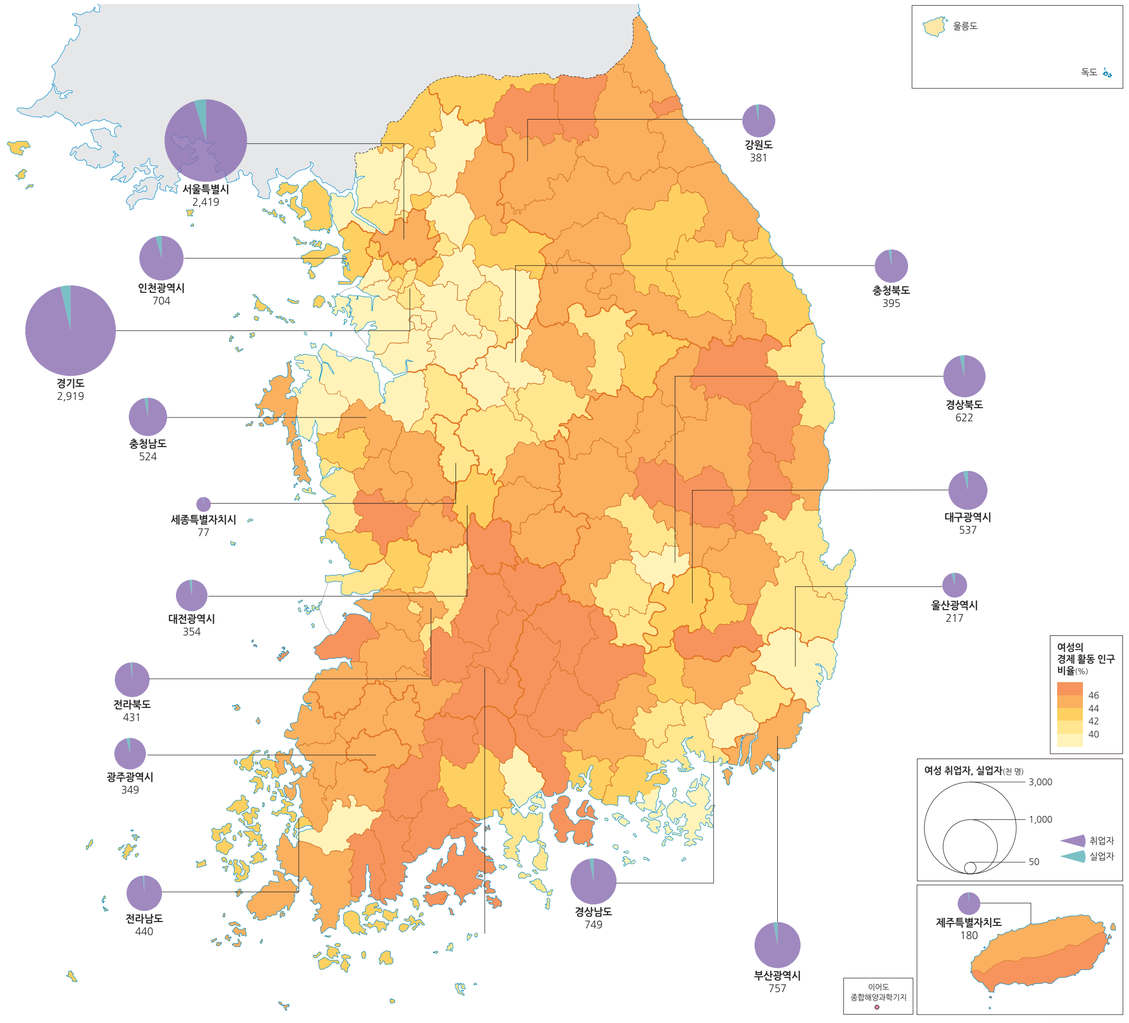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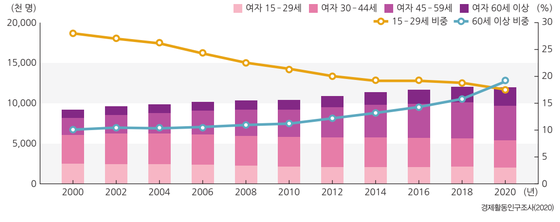
여성 고용

여성 취업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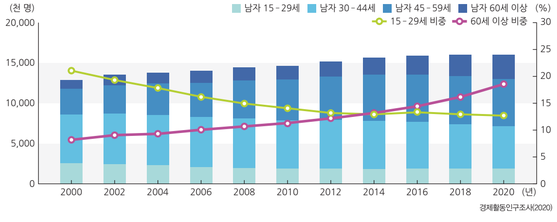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연령별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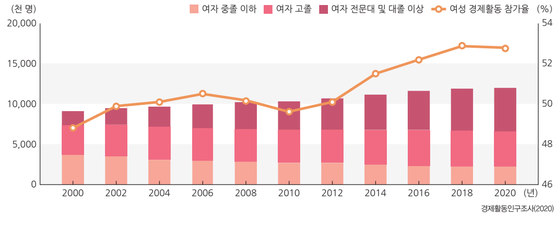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연령별 남성 경제 활동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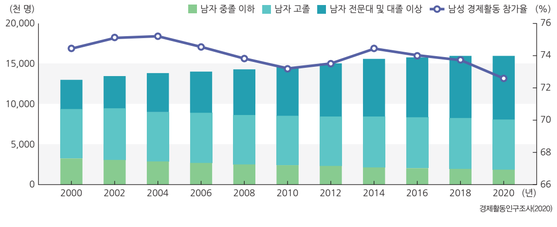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교육 수준별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교육 수준별 남성 경제 활동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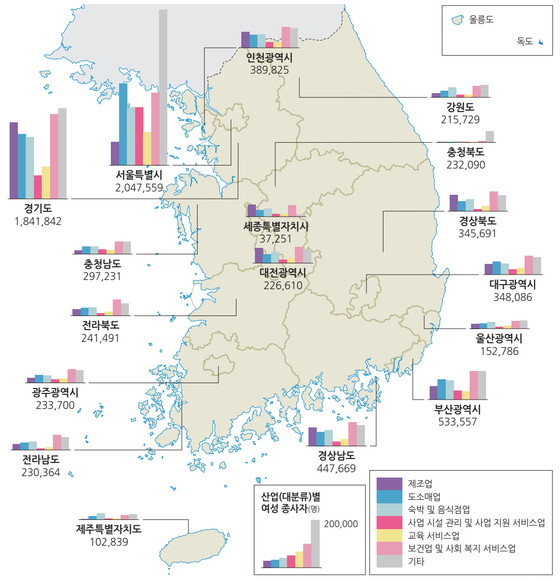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15세 이상 여성 중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1963년 37.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50.1%로 역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섰다.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다시 49.2%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2년 다시 50%를 넘어섰으며 2020년 52.8%로 증가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성(72.6%)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지난 10여 년간 5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나 경제 활동 인구 수는 2000년 9,104천 명에서 2020년 12,007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연령 분포를 보면 45－59세(35.7%), 30－44세(28.2%), 60세 이상(19.2%), 15－29세(16.8%) 순으로 많다. 30－44세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남성에 비해 저조한데 출산과 육아 부담 때문이다.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 다수 종사하며 이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일한다. 2019년 현재 여성 취업자는 9인 이하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은 다소 낮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도 여성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66.8%로 남성에 비해 낮고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다소 높다. 2020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5.4%로 지난 10년 간 40% 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정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혼인,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력을 가진 적이 없는 여성 구직자의 취업도 알선 및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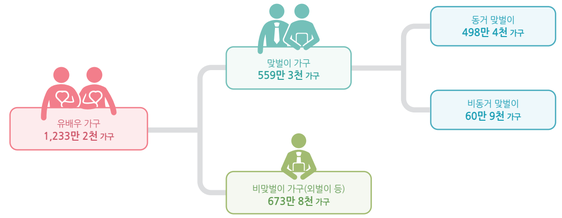
산업별 여성 취업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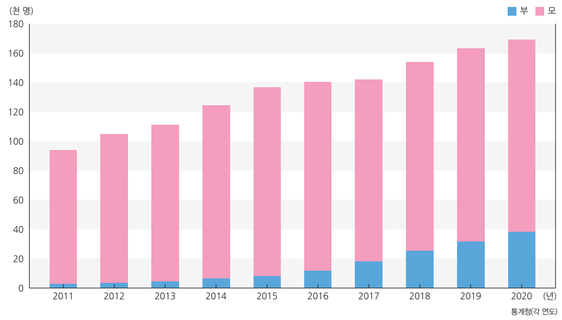
통계청(2020)

맞벌이 가구와 출산 및 육아 휴직(2020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비맞벌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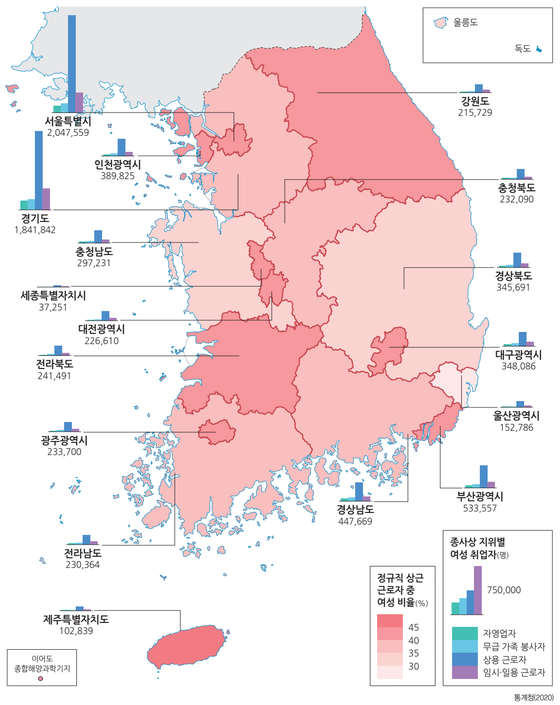


출산 전후 휴가자, 육아 휴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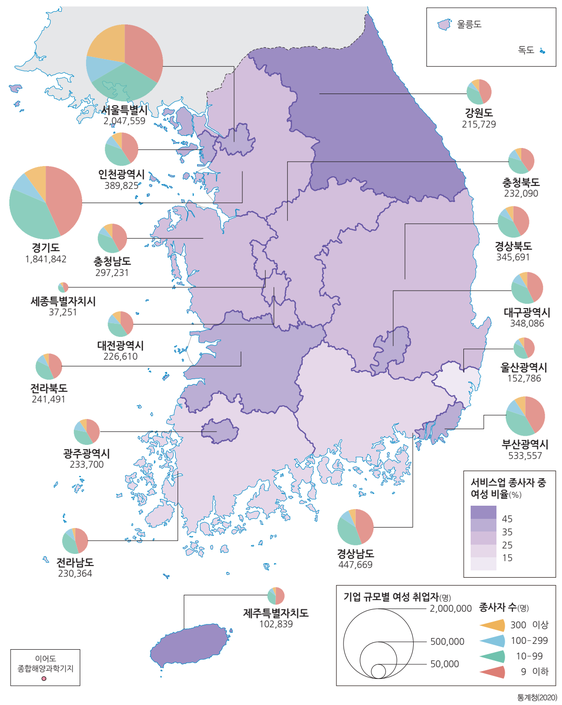
통계청(각 연도)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2020년)



통계청(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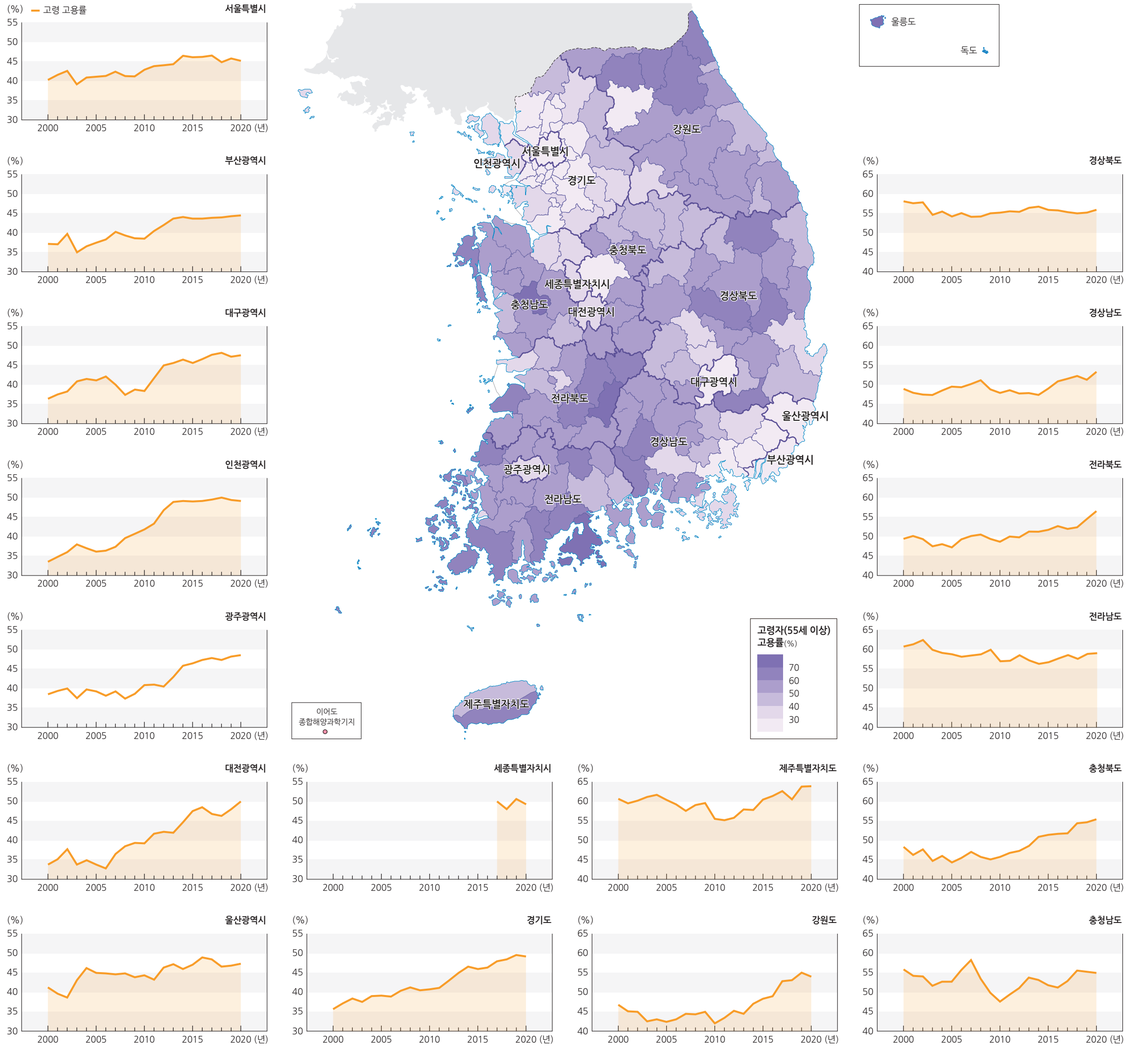
기업 규모별 여성 취업자(2020년)



통계청(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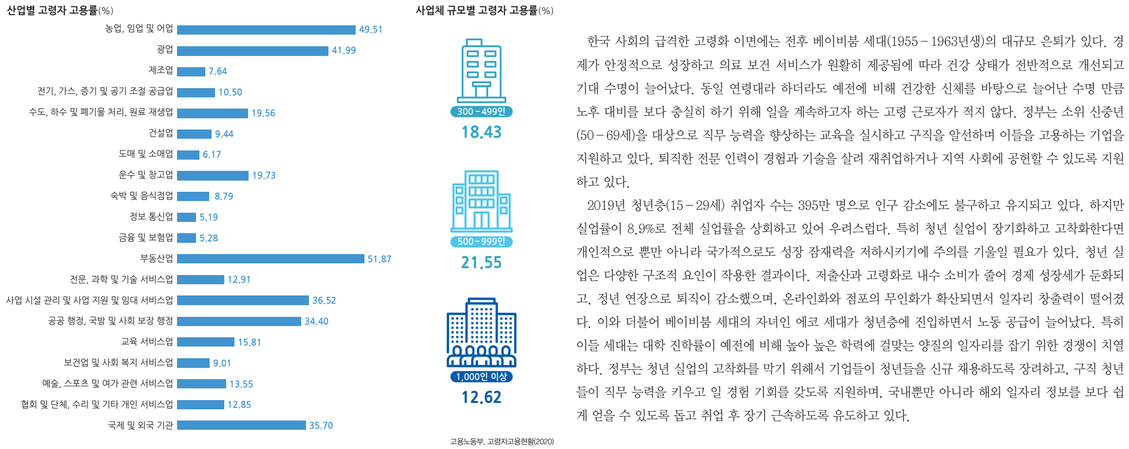
고령자 고용

고령 취업자(2020년)



통계청(2020), 지역별고용조사(2020)

고령자 고용률(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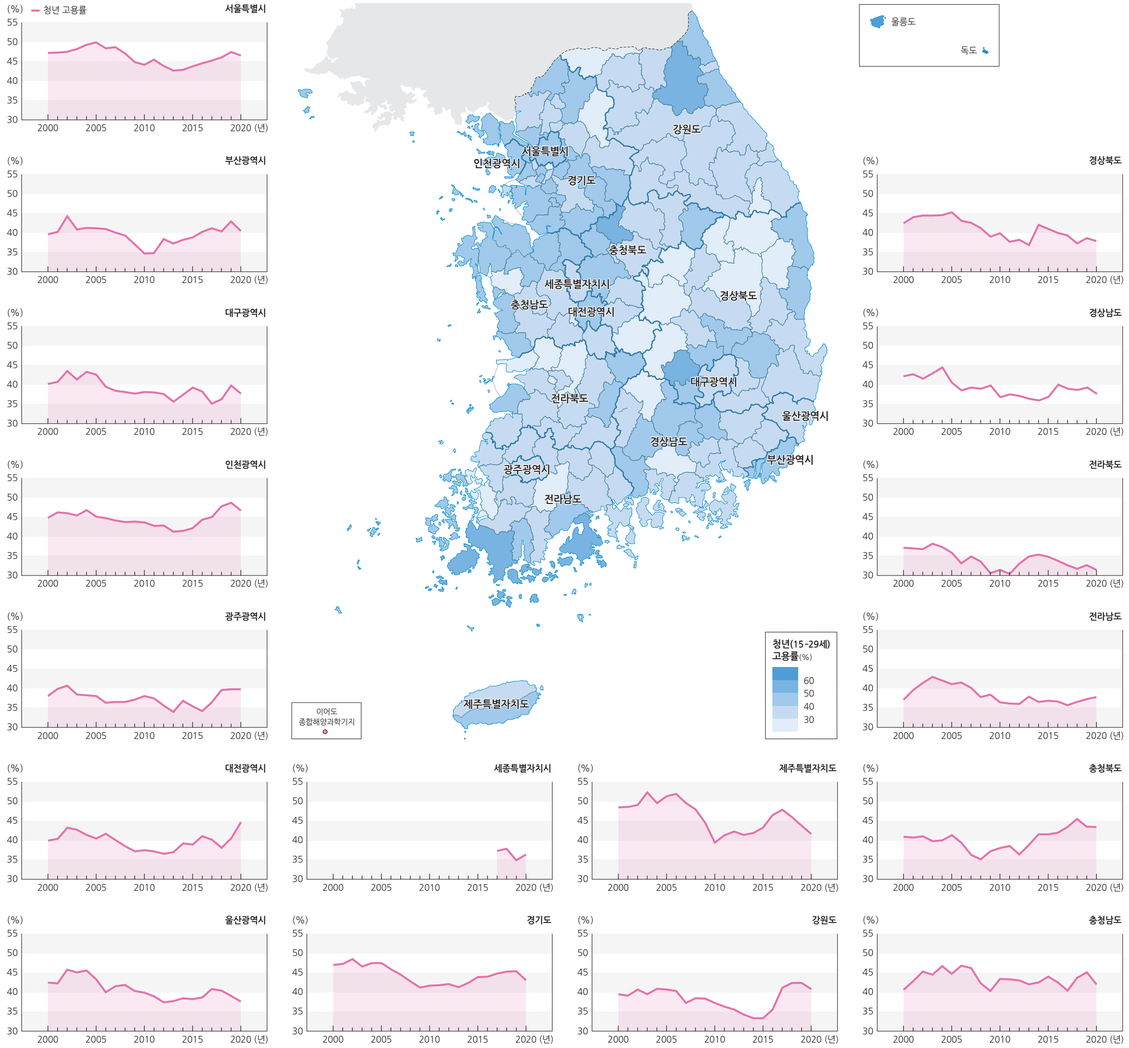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2020)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이면에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의료 보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됨에 따라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동일 연령대라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늘어난 수명 만큼 노후 대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고령 근로자가 적지 않다. 정부는 소위 신중년(50－69세)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을 알선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퇴직한 전문 인력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재취업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95만 명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8.9%로 전체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청년 실업이 장기화하고 고착화한다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은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수 소비가 줄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년 연장으로 퇴직이 감소했으며, 온라인화와 점포의 무인화가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졌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가 청년층에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났다. 특히 이들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예전에 비해 높아 높은 학력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청년 실업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구직 청년들이 직무 능력을 키우고 일 경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취업 후 장기 근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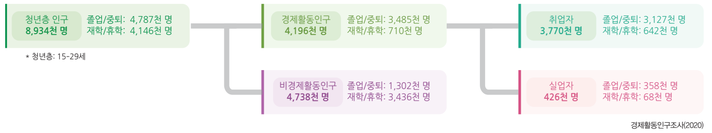
청년 고용

청년 취업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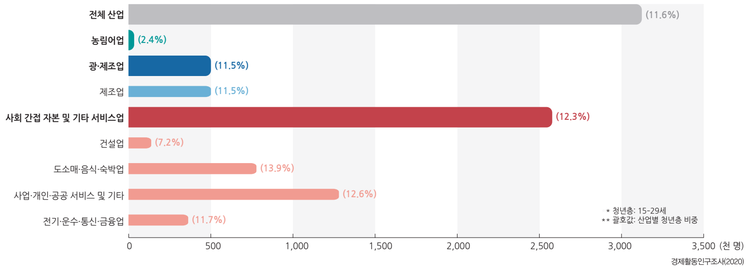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청년층 인구 경제 활동 상태(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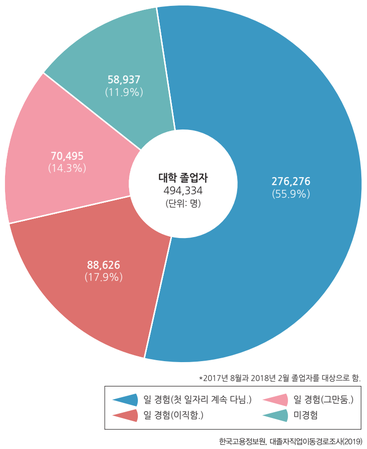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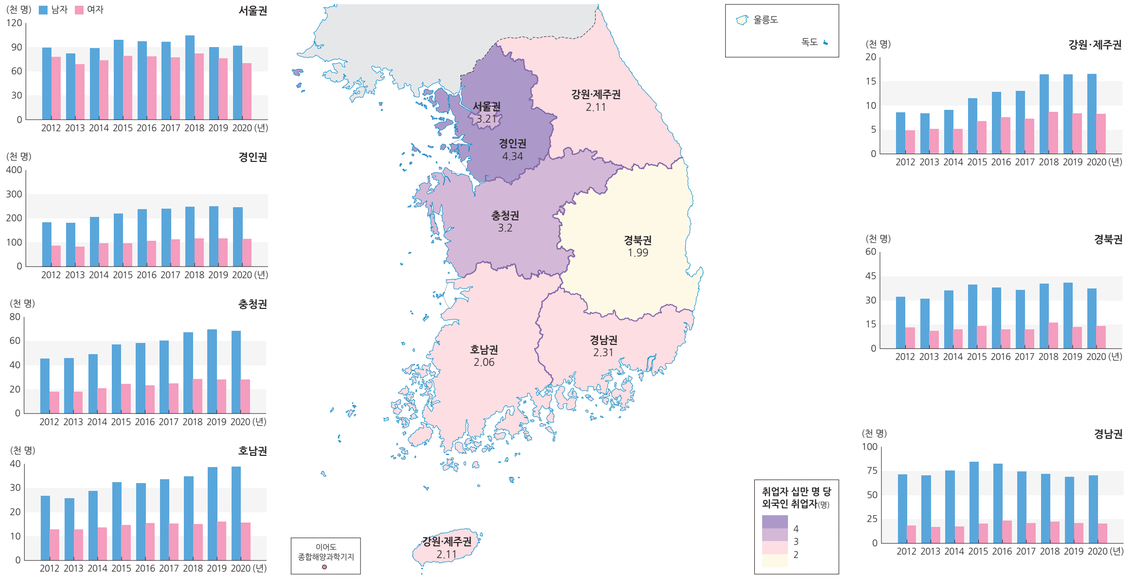
대학 졸업자의 일 경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9)

외국인 고용

외국인 취업자(2020년)



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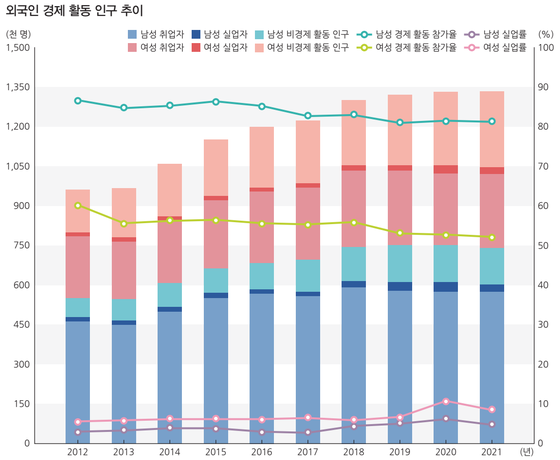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8년 약 31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자격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2020년 현재 약 204만 명으로 크게 늘어 전체 인구의 약 3.93%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 동포의 국내로의 이주는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웃 아시아 국가와 임금 격차가 확연해 지고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농축산어업, 건설업, 그리고 중소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가중되며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2020년 현재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이민자는 138만여 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133만여 명으로 절대 다수이고 나머지는 귀화 허가자이다. 이민자 중 경제 활동 인구는 95만여 명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68.7%이다. 이민자 취업자 수는 88만 명으로 고용률은 63.5%이며 실업률은 7.6%이다.

외국인 취업자 약 85만 명의 2/3가 남성이며 58.4%가 20－30대 청장층으로 젊다. 아시아 출신이 절대 다수이며 중국 동포인 조선족 32만여 명, 한족 중국인 4만 4천여 명, 베트남 8만 5천여 명 순으로 많다. 대부분 비전문 취업 비자(E-9), 재외 동포(F-4), 방문 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 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며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개인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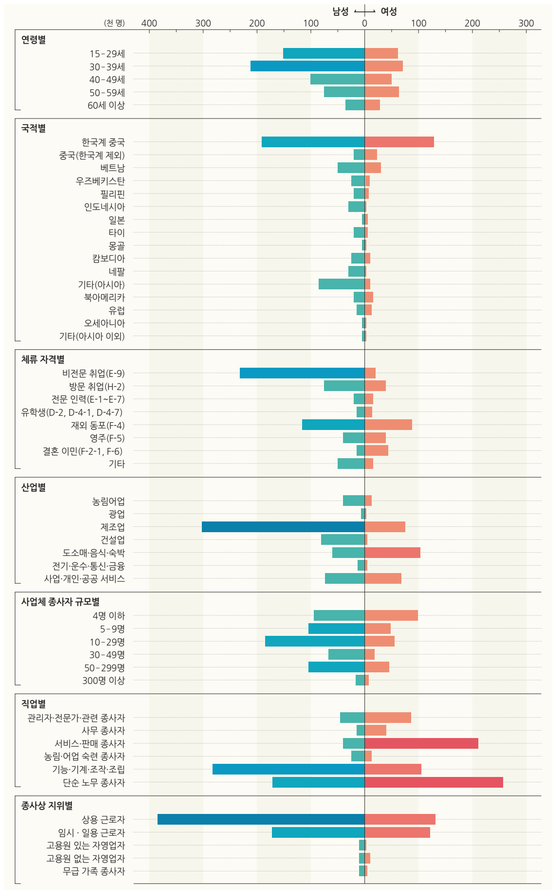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E-9)을 발급하는 일반 고용 허가제와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 취업 비자(H-2)를 부여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일반 고용 허가가 주어지는 국가는 2019년 현재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에서 일한다.

외국인 경제 활동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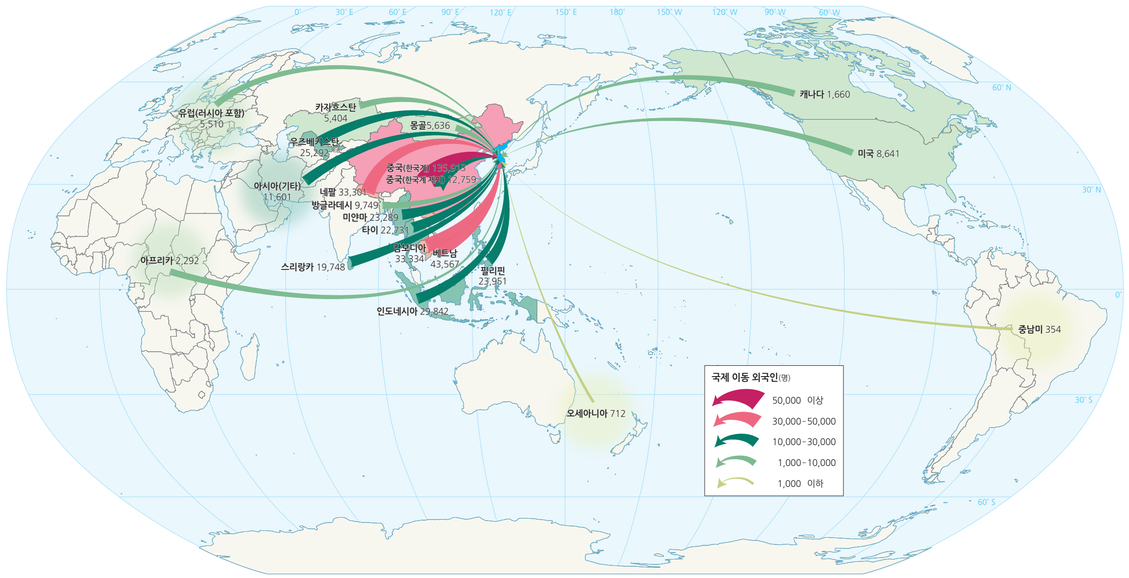
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1)

외국인 취업자의 유형별 분포(2020년)



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0)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별 분포(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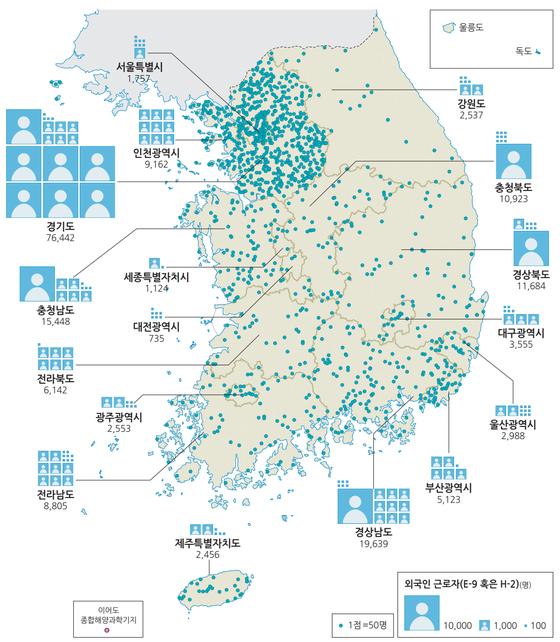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2019)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도입 현황(2004–2020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나라별 도입 현황(2004–2020년)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2020)

고용허가제 고용 동향(2020년)



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0)